사고 싶은 마음껏 살 수 있는 위험

(시편 73:1~28)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12.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고 싶은 마음껏 살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고 싶은 마음껏 살 수 있는 위험'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신앙적 회의를 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민이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V에서 무척 묘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남자 모델과 여자 모델이 각각 찍었습니다. 이 모델들이 게슴츠레한 눈빛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머리 주변에서는 사고 싶어 하는 물건들이 빙빙 돌아갑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골프채가 돌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유모차와 냉장고 선풍기가 돌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의 주변을 지구가 돌듯이 이것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고 있는데 이 모델들이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문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비싼 유모차를 사고 싶지 않은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제 유모차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사고 싶어 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광고에서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위 인터넷 렌탈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렌탈 플랫폼에 들어오면 사고 싶지만 살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적은 돈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묘미(妙味)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렌탈 플랫폼의 이름이 묘미입니다.

이 광고를 접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광고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최선과 차선을 모두 없애버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주로 최선과 차선은 무언가를 간절히 가지고 싶어 할 때에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을 모조리 뭉갤 수 있는 사업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새로 나온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의 최선은 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새로 나온 차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미 2017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게 꼭 필요하고 꼭 사용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면서 가져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삶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주고 싶어 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완벽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으로부터 나오는 사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만큼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고 사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최선으로 끌어가는 십자가 생활화를 모르는 이들은 차선을 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렌탈 플랫폼이 십자가 생활화라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묘미'라는 렌탈 플랫폼을 만들어서 맛볼 수 있게 해주면서 최선과 차선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오늘 시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8~19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일을 선취(先取)된 것으로 믿으며 노래한 것입니다. ‘전멸하였나이다’라는 말의 시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선취 신앙의 말입니다.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에서 가파른 비탈길에 깃발을 여기저기 꽂아놓고 스키를 타는 알파인 스키나, 활강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미끄럽고 가파른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끝이 천 길 낭떠러지인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꿈에서라도 이렇게 되기를 동경합니다. 그렇게 비탈길을 미끄러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가 11편이 있는데 아삽 본인이 지은 시가 있고 그 자손들이 지은 시도 있을 것입니다. 읽으셔서 아시는 대로 이 시는 한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대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인이 그토록 성공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반면에 의인은 고통과 징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형통한 악인의 삶에 대해 질투하다가 실족할 뻔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22절에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함이 마치 우매한 짐승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부자나 승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짐승 수준의 우매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1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곧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에 선 자가 3절에서의 악인이자 오만한 자입니다. 또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자들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실족할 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짐승처럼 우매했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3절과 27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더 읽어가면서 주의를 기울여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그리고 역경과 장애도 없이 성공을 이룹니다. 평생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살며 재물을 불립니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진 것 아닙니까? 시샘이 나고 질투가 생길만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냄직도 합니다.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환경은 안정적이고 재물은 늘어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입장에서보자면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미 질투할 이유는 없음에도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인의 마음도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추구하던 것을 함께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처럼 보는 사람은 부자를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가 생겼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시인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 악인과는 구분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갖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똑같은데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악인이 악인인 이유는 노골적으로 돈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돈 버는 책을 읽고, 건강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책에 몰두하며 나아갑니다. 시인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재물을 많이 갖고 싶었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라야 재물과 건강이 주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은 율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악인과 똑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돈으로 삼고, 안정적인 형편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대하여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런 이해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돈 건강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성공을 추구하려는 악인들이 자신이 못 버는 돈을 벌고 건강을 누리며 생각도 못 해본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자 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과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했습니

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성소에 들어감으로서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시인 아삽 당사자이든 그 자손이든 그들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직업적으로 대하던 성전과 성소의 존재의미를 근원부터 다시 생각했다는 것이고 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마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의 덮개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 시인은 자신이 악인과 똑같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인 돈과 건강이라는 이름을 담음으로서 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자신의 우매함이 짐승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참 복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하나님만 들어와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와 있고 건강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성공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짐승 수준의 우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곧 분깃이심을 노래합니다.
26절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와 연결된 마음은 승자와 부자들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었습니다.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라고 깨닫고, 이어서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소를 근원적으로 생각하자 자신이 악인으로 여기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우매한 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면서 마음이 채워질 것으로 믿고 실제로 돈을 벌면 돈으로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게 산다고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성공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 안에서 성가 대장이었지만 성전을 생활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본래 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에, 시인이 성소에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은 곧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소의 구조를 떠올리자 지성소와 법궤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 자리에 돈과 건강 등의 세상의 성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곧 기도를 뜻하고 기도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음을 깨닫고 반성했던 것입니다.
성소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여도 결국 그 마지막 종착점은 돈과 건강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 숫자로 부흥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죽이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지성소에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가질지라도 그 모든 활동들은 결국 세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복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 할 때에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사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사고 싶은 내가 죽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물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용하셔서 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갖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 사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는 삶을 살게 하지 마옵소서. 사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을지라도 돈과 건강을 뺏어서라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시고 하고 싶으신 것들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